

<중 국 권역별 · 성별연구단>

제15회 동·서부협력 및 투자무역상담회 개최

■ 제15회 동·서부협력 및 투자무역상담회(第十五届中国东西部合作与投资贸易洽谈会, 이하"시차후이; 西洽会)가 4월 6~10일 산시성 시안시(陕西省 西安市)에서 개최되었음.

사진 1. 국제무역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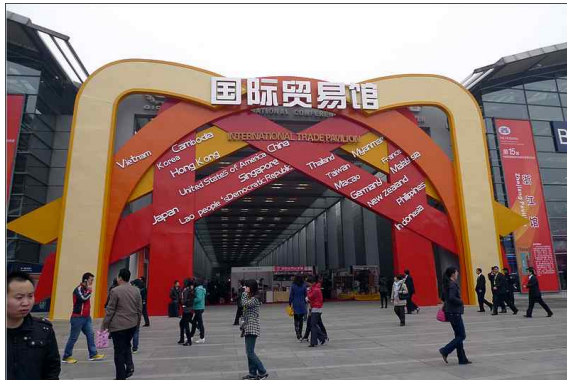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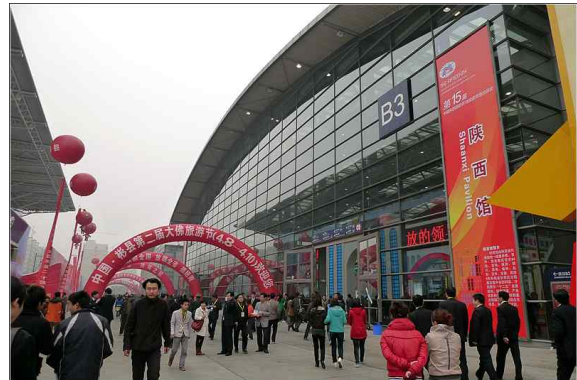


사진2. 산시성 전시관



– 시차후이는 전국 유일의 동서부간 경제협력 촉진 전시회이며, 1997년 “동서부 협력 및 공동 발전”을 기치로, 국무원, 장쑤성(江苏省), 톈진시(天津市), 산시성 정부가 공동 개최 하기 시작함.

– 이후 2006년 제10회 시차후이에서 ‘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·서부대개발 촉진 좌담회’ 개최 이후, 시차후이를 동서부간 장기적인 중요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

○ 2011년은 “지역 협력 심화, 서부대개발 추진(深化区域大合作, 推进西部大开发)”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31개 성, 시,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고, 한국, 일본, 독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며 국제적인 투자무역상담회로 규모가 확대되었음.

■ 시차후이가 열린 5일간 총 101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본이 유치되었고, 5,714억 위안¹⁾ 규모의 동·서부 협력 프로젝트 사업 계약이 성사되었음.

– 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주로 △ 전략적 신흥산업 △ 선진제조업 △ 관광 △ 도시화 분야에 집중 되었으며, 프로젝트별 평균 투자액은 10억 위안에 이름.

■ 한편 한국은 2010년에 이어 2번째로 참가하였으며, 총 870만 달러의 거래실적을 올렸

1) 한화기준 약 95조 원

음.2)

사진 3.4. 한국관



- 금번 참가기업들은 대부분 화장품, 음식료품, 의류 등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참여
- 서부지역에서는 전자, IT, 에너지, 환경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희망³⁾
- 특히 산시성의 경우 중국에서 석유, 석탄 등 중국내에서 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 중 하나로 현지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 재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가 필요함.

(자료: 현지언론 등 종합)

(오종혁 연구원)

2) KOTRA 집계 기준

3) 한국-서북3성 (산시성, 닝샤자치구, 간수성) 경제협력포럼